

**행복요리법**  
마티유 리카르 지음  
백선희 옮김  
현대문학 | 1만5천원

### 행복은 어디에

우리는 누구나 행복해지고 싶어 한다. 하지만 행복이란 무엇일까? 서점에는 '행복론'을 소개하는 책이 넘쳐나고 백화점이나 가게에서는 '행복'에 관한 상품이 무수히 팔려나가고 있지만 정작 그것들이 우리를 '본질적으로' 행복하게 하지는 못한다.

<행복요리법>은 불교와 서양 철학, 인지와 과학, 심리학, 뇌 생리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지식을 토대로 '행복'의 의미를 밝혀내는 책이다. 지은이는 촉망받던 과학자의 길을 버리고 티베트로 떠나 33살에 출가한 프랑스 출신 마티유 리카르(58). 얼마 전 철학자인 아버지 장 프랑수와 트벨과 나는 대담집 <승려와 철학자>(이플리오)를 통해 국내에 소개된 그는 현재 달라이 라마의 통역을 맡고 있고, 불교 경전의 번역가로 활동 중이다.

지은이는 책에서 '행복이란 어쩌다 가끔 선물 받는 것처럼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찾아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우

### 과학자의 길 버리고 출가한 佛 출신 스님의 행복찾기

리가 '행복에 필요한 모든 것'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못한 것은, 내적 평화가 결여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그는 이타심(利他心)을 강조한다. "검은 손은 근본적으로 타인들과 그들의 행복을 지향하는 태도"라는 그는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사람들이 평균보다 높은 공격 성향을 보인다는 사회심리학연구를 인용하며 "자신을 낮춤으로써 타인을 배려하는 이타심이 행복의 핵심"이라고 말한다. 결국 개인의 행복은 이기적 충족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남의 행복을 지향할 때 함께 얻을 수 있다는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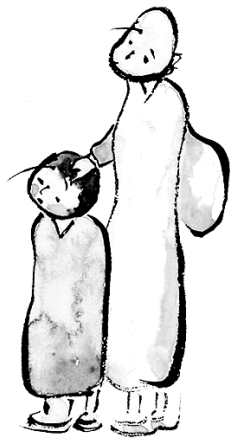
그렇다면 행복하기 위해서는, 행복을 '요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그는 불교적 관점에서 볼 때 모든 존재는 완벽에 이를 수 있는 잠재적 역량을 자기 안에 지니고 있으며, 자신의 참된 본성을 구현하기 위한 지름길이 바로 '명상'이라고 말한다.

그는 "에베레스트산을 오르기 위해 반드시 네발의 한적한 시골에서 출발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 교통이 혼잡한 서울 한 가운데서도 출발할 수 있다"며 "조급하기만 한 발걸음을 멈추고 잠시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 바로 그것이 행복을 향한 첫걸음"이라고 말한다.

여수령 기자

"얼마 전 소나비가 쏟아지는 오후에 비행기를 탔습니다. 천둥이 치고 번개가 번쩍이는 하늘은 검은 구름이 짙게 깔려 한밤중처럼 어두컴컴했습니다. 얼마쯤 시간이 흘렀을까. 창문 밖을 내다보니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 끝도 없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본래가 파란 하늘인 것입니다."



**구름 뒤 파란 하늘 2**  
정여 스님 지음 | 혜성출판사 | 8천5백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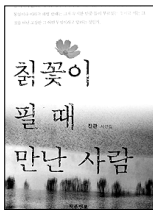
## 고뇌 구름 걷어내고 맑은 마음 엮니다

부산 여여선원장 정여 스님이 생활 속의 여유를 전해주는 글을 모은 책 <구름 뒤 파란 하늘 2>를 펴냈다.

티한 점 없는 맑고 깨끗한 하늘에 탐내는 구름, 미워하고 원망하는 구름을 스스로 만들고 고통스러워하는 중생들의 마음을 짚어 낸 스님은 "우리가 일으킨 갖가지 생각은 파란 마음에 일으킨 구름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이러한 '고뇌 구름'을 없애기 위해서는 맑고 괴로운 생각이 맑고 깨끗한 하얀 마음에서 일으킨 마음의 때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다.

### 삶의 여유 전하는 간결한 법문 직접 그린 선화와 함께 담다

책에 실린 150여 편의 글은 1997년부터 98년까지 부산불교방송 '생활 속의 부처님 말씀'이란 프로그램에서 법문한 내용이다. 이번에 펴낸 책은 98년 법보시용으로 발간됐던 것을 일반인들도 볼 수 있도록 다시 책으로 엮은 것이다.



## 중생의 아픔 보듬는 두 시인의 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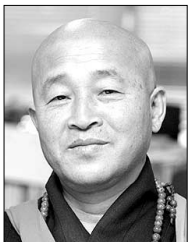
**침꽃이 필 때 만난 사람** 진관 스님 시집 | 자주인보 | 1만원  
**이 길이 나는 좋아** 해운 스님 지음 | 세손 | 5천원

고통 받는 중생의 아픔을 보듬어주는 두 권의 시집이 나왔다. 서울 해인선원장 해운 스님의 <이 길이 나는 좋아>와 조계종 불교인권위원회 위원장 진관 스님의 <침꽃이 필 때 만난 사람>이 바로 그것이다.

<이 길이 나는 좋아>가 각박한 도심 속에서 상처받고 고뇌하는 현대인들의 삶을 달래준다. <침꽃이 필 때...>는 이른바 '여순반란사건'의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고 있다.

"여순 반란이라는 비극에 대하여 말하려는 순간에/하늘에는 검은 구름이 나를 슬프게 한다./기억하라 기억해 나라 눈물로 기억해 내라"('여순 반란이라는 비극에 대하여' 中)

진관 스님이 펴낸 <침꽃이 필 때...>는 최근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사자 명예회복특별법' 개정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들의 영혼을 달래기 위해 쓴 시 110여 편이 담겨 있다. 스님은 "지난 1월 '제주 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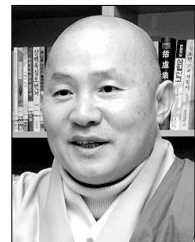


진관 스님

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것처럼 '여순반란사건' 또한 관련 법 제정으로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여수, 순천, 구례 등지에서 죽어간 영혼들을 위해 이 시를 바친다"고 밝혔다.

"우리는 형제이고 부자였었지/ 서로가 잘났다고 했었지/ 그래서 싸우고/ 원수가 되고 가난한 거지가 되었었지"('IMF 시절 우에노 공원' 中)나 "지구촌 사람들/이러니 나라/평화의/봄이 오기를 노래 부릅니다"('언제쯤 평화의 봄이 될까' 中)에서처럼 해운 스님의 시는 분단이나 경제난, 전쟁 같은 현실의 아픔을 노래한다. 동국대 홍신선 교수는 "스님의 시심(詩心)을 통해 불교가 도구적 이상의 폐해를 줄이고 뜻생명 있는 것들의 공존, 화해의 삶을 추구하는 대안사상임을 느낄 수 있다"고 말한다.

일반인들에게 낯선 불교용어는 쉽게 풀이했고, '공존'과 '허공에 꽃이 핀다' 등의 시는 현각 스님의 번역본을 함께 실었다.



해운 스님

### 새로운 책

■ <극단의 형벌>(스콧 터로 지음, 정영목 옮김, 교양인, 1만2천원)=사형은 법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살인인가? 미국의 검사 출신 변호사이자 베스트셀러 소설가인 저자 스콧 터로는 이 책에서 사형제도의 비인간성과 부당성에 대해 질문을 던진다. 지은이는 법률가로서 자신이 직접 다룬 여러 사형 사건과 일리노이 사형위원회에서 2년 동안 사형제의 문제점과 개선안을 연구한 경험을 소개한다. 최근 '사형폐지특별법안' 처리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사회를 되돌아보게 만든다.



■ <예수님은 독실한 불교 승려였다>(석과 스님 지음, 비례사=대전 비례사 주지 석과 스님이 펴낸 20여 페이지의 소책자. 스님은 예수가 <신약성서>에 나타나지 않는 13세부터 29세까지의 기간 동안 인도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웠다고 주장한다. 민회식 교수의 <변화경과 신약성서>의 내용도 함께 소개하고 있다. (011)455-1290



■ <기독교는 정말 진리일까?> <격암유록은 가짜 정감록은 엉터리 송하비결은?>(김하원 지음, 도서출판 인연, 각 1만원, 1만5천원)=종교와 철학에 관한 저작을 쓰고 있는 김하원 씨가 예언서 <격암유록>을 비롯해 <정감록>, <송하비결>의 진위 여부와 예언의 정확성 등을 파헤치고 있다. 지은이는 이러한 예언서들이 후대 신종교단체들이 지어낸 위서(僞書)라고 주장한다.



### 금주의 베스트셀러 10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오체부처	한 경 해	반디미디어
2	출로 사든 즐거움	법정 스님	샘터
3	마음 부처가 사는 나라	평화 스님	이론야점
4	스님이 이야기	지록 스님의	여시야문
5	참회 참회기도법	김 현 준	효림
6	텐진빠묘의 마음공부	텐진 빠묘	열림원
7	붓다 그 삶과 사상	내평화 현대의	무우수
8	법상에 도가 있다	정 세 채	모색
9	예세초결	예세초결	김영사
10	불교가 정말 좋아하는 불교우화	이용범	수희재

도서 안내: (02)737-0695

**禪**으로 깨우치는 반야심경

역경의 체증을 통해 깨어주는 이 시대의 아무 선사! 대원 문제원 선사(전강 선사님 인가계사)의 감로법문 바로보인 반야심경으로 책도 출간되었습니다.

일시: 매일 첫째주 일요일 오전 11시-12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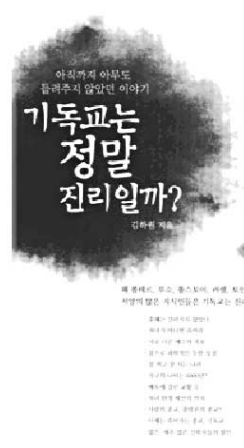
www.zenparadise.com  
☎ 02-522-0122, 011-785-0122

# 아직도 몰라요? 이제 그만!!

"이럴 수가??? 이제야 속 시원히! 확실히! 알았다."

## 「기독교는 정말 진리일까?」

「한쪽 뺨 맞고 성질나신 예수님」 개정판 302쪽 / 10,000원



"내용이 너무 좋고 재밌어서, 선물하려고 한다."

(한 독자님이 읽은 후, 세 권을 더 사 가면서)

"재미있더군요. ... 3시간 만에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

(ID: 행복한 딸기)

- 왜 서양의 많은 유명 철학자, 지식인들조차 차라리 미신이라고 했을까?
- 왜 서양인들은 기독교를 이제 거의 버려가고 있을까?
- 왜 기독교는 미신일까? 이 한 권이면 의문점, 논쟁, 불화 모두 끝입니다!

한 번 읽고는, 아시는 분들에게 선물하는 분도 많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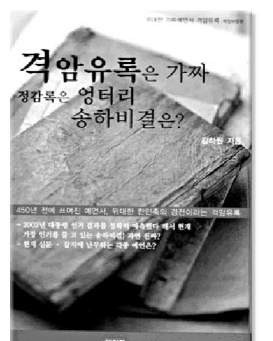
성경의 오류 / 기독교인의 억지와 기만 / 교리의 억지와 모순 / 거짓 예언 인용 / 예수조차 주장한 시한부 종말론 / 볼테르·루소·톨스토이·러셀·토인비 등 많은 서양 지식인들의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 등등 짧고 재미있는 105개의 이야기가 들어 있는 책.

격암유록은 송하비결은 가짜 엉터리?

440쪽 | 15,000원

비결서, 예언에 대한 모든 진실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책

- 450년 전의 신비한 예언서, 위대한 민족의 경전이라는 「격암유록」은 왜 100% 가짜인가? 누구에 의해,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 요즘 시중에 나도는 춘산채지가, 초창록, 원효결서, ... 울긋불긋, 송하비결 역시 모두 가짜. 엉터리
- 신문, 잡지에 자주 오르내리는 도인, 예언가, 무속인들의 예언들은?



특히 비결, 예언을 전도의 큰 수단으로 삼고 있는 종교를 믿는 수십만 신종교인은 꼭 한 번 읽어 봐야 할 책